

## 요약

최근 주요국들은 CBDC의 연구 및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임. 보험산업과 CBDC의 관련성 및 효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부족하나, 보험료 납입 수단으로 CBDC가 활용될 수 있음. 보험료 납입에 CBDC가 활용되는 경우 ① 업무비용 감소, ② 운영 효율성 개선, ③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④ 금융 포용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주요국들은 현금 수요 감소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이하 ‘CBDC’)의 연구 및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임<sup>1)</sup>
  -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과 유사하나, 국가 및 중앙은행이 보증함으로써 안정성이 높고 가치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과 차이가 있음
  - 한국의 경우, CBDC에 강제통용력을 부여하고 법정화폐(法貨; Legal tender)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sup>2)</sup> 국내 CBDC는 관련 법률상으로도 일반 가상자산의 정의 및 내용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보임<sup>3)</sup>
- 보험산업과 CBDC의 관련성 및 효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부족하나, 보험료 납입 수단으로 CBDC가 활용될 수 있음
  - CBDC는 금융업 중에서는 은행업, 보험업 중에서는 예금보험과 관련성이 높고 일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부문에서의 활용이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자료가 부족함
  - 그러나 일반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과는 달리 CBDC는 기존의 지급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음
  - 실제로 중국 및 인도 손해보험회사 Reliance General Insurance의 경우 보험료 납입 시 CBDC를 활용 중임
    -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Shenzhen)의 경우, 중국인민은행(Bank of China) 선전지점과 평안손해보험(Pingan Property Insurance) 자회사가 협력을 통해 중국 최초의 디지털 위안화(e-CNY) 보험을 출시함<sup>4)</sup>

1) 한국은행(2022.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 10. 4),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별첨 2)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2) CBDC는 중앙은행이 법화로서 발행하고 이에 따라 강제통용력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CBDC를 법화로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임  
 3) 한국은행(2021.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4) Global Times(2021. 7. 20), “Shenzhen issues China’s first digital yuan insurance policies”; 해당 보험상품은 선전 난산

-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도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상품의 종류도 자동차보험,<sup>5)</sup> 계좌손실보험<sup>6)</sup>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 인도에서는 손해보험회사 Reliance General Insurance가 예스은행(Yes Bank)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보험회사 최초로 디지털 루피(e-Rupee)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sup>7)</sup>

○ 보험료 납입에 CBDC가 활용되는 경우 ① 업무비용 감소, ② 운영 효율성 개선, ③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④ 금융 포용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sup>8)</sup>

- CBDC는 전통적인 지급결제시스템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안정적이므로 CBDC가 보험료 납입에 활용되는 경우 관련 업무비용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CBDC를 통한 지급결제 내역은 블록체인에 프로그래밍되어 자동 저장되므로 재무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 또한 불필요해짐<sup>9)</sup>
- 보험금 청구 처리 및 정산의 자동화에 따라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여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금 청구 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확보됨으로써 고객만족도가 향상되고 보험사기 위험이 감소할 수 있음
- CBDC의 활용을 통해 자연재해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공급으로 인력비용과 조정비용이 감소하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CBDC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규제당국이 CBDC를 보험산업에 활용할 경우 새로운 규칙과 표준을 도입할 수 있고, 규제 강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준수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수익성 감소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연구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sup>10)</sup>

- 결국 보험산업에 대한 CBDC의 영향은 보험회사가 신기술 및 규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가 CBDC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Nanshan) 지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사망, 진단, 사고사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30만 위안(약 4만 900달러)을 보장함

5) Reuters(2022. 6. 17), "China's digital yuan extends usage into finance scenarios"

6) Bitcoin.com(2022. 12. 13), "Report: Chinese Company Launches Digital Currency Insurance Product"

7) The Hindu Businessline(2023. 4. 27), "e-rupee. Reliance General becomes first insurer to accept CBDC in tie-up with YES Bank"

8) Finextra(2023. 6. 2), "CBDCs and Insurance—A Transformative Interplay"

9) InsurTech(2023. 3. 12), "Wha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will mean for insurance"

10) Finextra(2023. 6. 2), "CBDCs and Insurance—A Transformative Interplay"